◎녹음 3(그린손해보험곽양수과장)

이성준 : 여보세요.

곽양수 : 네.

이성준 : 네. 안녕하세요. 도봉병원에서 그저께 합의 본 이성준인데요.

곽양수 : 예.

이성준 : 예. 제가 몸이 더 안 좋아서 어저께 또 물리치료 병원에 갔었거든요. 근데 다른데서 지금 MRI도 찍어 봐야 될 것 같다고 그래서

곽양수 : 어디가요?

이성준 : 허리요. 허리하고 어깨하고요. 어저께 일하러 나가려는데 도저히 안 되가지고 병원에 다시 갔거든요. 그런데 내가 그때 과장님도 알다시피 그 사람이 나한테 협박해가지고 내가 그날 보자마자 바로 합의 봐준 거였거든요. 우리 애들 뭐 어떻게 할까봐. 아시잖아요. 협박하신 거. 그죠?

곽양수 : 그 협박 내용은 모르죠.

이성준 : 그 협박 내용은 모르는데 협박한 거 전화한 건 아니잖아요.

곽양수 : 그날 통화 했단 얘기도 알고요. 협박 ...

이성준 : 예. 그래가지고 그린손해보험에서 추가로 지불대리 안 해주면 제가 이 사람을 협박죄로 고소를 해가지고 그걸 기초로 내가 합의서를 무효로 하겠다고 내 친구가 변호사한테 물어봤더니 그렇게 하라고 그러더라고.

곽양수 :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실 계획이세요?

이성준 : 그렇죠. 나 이 사람한테 폭행까지 당했어요. 폭행당하고 병원에 있을 때 협박 전화 와가지고 협박도 당하고 그거 다 자료도 있거든요. 그거를 기초로 해서 다시 합의서 그거를 무효 판정을 받든지 해야 되겠는데요. 아휴, 밤 되가지고 저께도 다시 병원 갔고 오늘도 지금 또 병원 갈 거예요. 치료도 제대로 못 받고 그래서 일이고 뭐고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. 제가 웬만하면 이런 거 돈 몇 푼 더 받자고 이러는 게 아니라 그렇게 알고 계시라고요. 그렇게 회사에서는 안 해준다 이거죠?

곽양수 : 예예.

이성준 : 예. 알겠습니다.